

“농민수당 조례안 입법하라” 야적시위

곤포 사일리지 50개 쌓고서 ‘11개월째 표류’ 조례 입법 촉구

“죽어가는 농촌 살려야”...‘식량 위기 대응’ 공익적 가치 강조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 조형물 앞에 곤포 사일리지 야적 시위를 하며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역 농민단체가 27일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광주시청 앞에 뒤통수를 짚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

청 광장 조형물 앞에 곤포 사일리지(Baling silage·뒤통수를 짚아 놓은 콩) 50개를 쌓고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주민 발의의 청구한 지 11개월이 지났지

만 시는 이러저러한 핑계로 올해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며 “방역 못지 않게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년 전 농촌 지역을 행

정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광역시로 편입해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은 죄다 농촌에 세워졌다”며 “광주 지역 농민들은 인근 전남지역 농민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역차별까지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농민수당 제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농민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2%에 불과하지만 식량 위기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공익적 가치에 주목할 때”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농민수당 제도를 광주시도 도입해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의회에 대해서도 “지난해 시 의원 23명 중 17명이 농민수당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발의한 농민수당제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신봉우기자

코로나환자 접촉 뒤 여친 만나러 격리 위반 20대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광주 한 노래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접촉했다.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지역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8월 25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집을 벗어나 지역 모 건물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여자 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방역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량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왜 오줌 못가려’ 애완견 난간 매달아 학대 40대 벌금형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학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 지역 자택 옥상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을 맨 채 난간 밖에 매달아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정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동일한 개에 대한 학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개의 몸에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반성하며 동물 학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일당 10명 검거

빌린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19)군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군과 범행을 공모한 9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광주 서구 상무지구·양동북계도로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렌터카를 빌린 뒤 자신의 지인을 번갈아가며 태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량 통행이 많고 차로 변경이 잦은 도로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장병 집단감염’ 상무대 첫 확진 장교, 내부 방역지침 어겼다

2박3일 외박 때 카페·술집·실내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영내 집단 코로나19 감염이 번진 육군 교육·훈련시설인 상무대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위관급 간부교육생이 출타 전 교육 내용을 여기고 다중이용시설을 다수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복귀 뒤에도 문진표 작성·의심 증상 보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상무대 육군포병학교 소속 위관급 간부교육생인 A씨(전남 395번 환자)는 이날 13일부터 15일까지 주말 외박을 다녀왔다. 이 기간 중 A씨는 서울에서 다중이

용시설인 카페·술집·실내스크린야구장 등지를 방문했으며, 외박 복귀 뒤에도 별도 격리 조치 없이 지난 19일부터 전술 훈련에 참여했다.

육군 방역대책본부 내부 코로나19 관련 지침상, 장병은 출타에 앞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다중이용시설 방문·모임 자제 등을 교육받는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지침을 어기고 외박 기간 중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형을 비롯한 일행 4명과 실내스크린야구장을 방문했다.

복귀 뒤에도 자가 문진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체온 측정 등에서도 발

열 증상이 없었다.

A씨는 훈련 참가 중 가벼운 몸살 증상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의심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곧바로 보고하리’는 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이후 23~24일께 후각 기능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느꼈지만 곧바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군 내부 방역지침 자체도 도마위에 올랐다.

육군은 휴가·외박 후 출타 복귀 장병에 대해 위병소에서 문진표 작성과 체온 측정 등을 거쳐 원대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감염 위험 노출 정도에 따라 1~2주간 별도 격리 생활관에서 머물며 예방적 관찰·격리

를 한다. 상무대는 사병의 경우 소속 소대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동일 기간 휴가 복귀자끼리만 모아 2주간 따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간부 교육생은 영내·외 독신자 숙소를 쓰고 있고, 훈련·식사 등을 함께하는 동기 교육생이 일제히 외박을 다녀오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외박 복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7일까지 8일간 일상적인 교육·훈련을 받았다.

그 사이 A씨를 통해 영내 식당에서 접촉한 동기 교육생 등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날까지 A씨를 비롯해 장교 16명, 사병 1명 등 총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